

# 국립남도국악원 20주년 공연·토론회 풍성

6~7일, 13~27일 '굿음악축제'  
8월, 해외 동포 초청 순회공연  
12월 '20년사' 발간도 예정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개원 20주년 기념토론회를 비롯해 기념식 및 축하공연, 해외동포 초청 순회공연과 20년사 발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2004년 7월 7일 남도 전통문화의 보고인 진도에서 개원한 국악원은 그동안 판소리, 시나위, 산조 등 지역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일조해 왔다. 진도아리랑이나 강강술래, 진도씻김굿을 비롯해 진도다시래기 등 수많은 전통 자료의 가치를 재발굴했으며 국악 전문연수, 공연, 체험, 연구 등 국악보급 활동에도 주력해 왔다.

먼저 4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5일에는 '개원 20주년 기념식 행사 및 기념공연'이 오후 2시부터 국악원 전악당에서 펼쳐졌다.

한편 오는 6~7일과 13~27일(매주 토요일) '2024 굿음악축제'를 국악원 일원에서 펼친다. 이번 행사 제목은 '운수대통, 만사형통 굿'이며 다양한 공연, 학술회의, 부대행사, 체험이 어우러진다.

6일(오전 9시 30분)에는 '굿음악연구 성과와 전승 현황'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국악원에서 연구해 온 굿음악 연구현황과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부천성주굿보존회'를 초청해 개인,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친다. 6~7일 이틀에 걸친 구관련 체험과 진도지역 문화탐방도 준비된다. 사진전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 및 부대행사는 무료.

이어 7월 13일에는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꽃신 신고 뿔뿔'을 선보인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서도, 경기, 남도지역의 '상여소리'를 무대예술로 구성해 호평받았던 작품이다.

20일과 27일에는 우리나라 대표 국 중 하나인



상갓집에서 주로 연행되는 '진도다시래기'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 무용수들이 망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초감제' 초청공연을 각각 진행한다. 진도지역의 상장례 속에서 전승되어 온 '진도다시래기보존회'와 '진도만가보존회' 초청 공연도 있다. 7일 오후 2시.

아울러 해외동포 초청 순회공연은 8월 중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국악원이 2006년부터 진행한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 사업에 참가했던 18개국, 74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선정해 국

악원(진도)을 시작으로 국립국악원(서울), 국립부산국악원(부산)에서 차례로 공연을 진행한다. 러시아 '소운무용단', '풍물패 맥'을 비롯해 헝가리 '한국전통공연예술단', 미국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에스토니아 '아리랑무용단' 등 4개국에서 총 3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2월에는 국악원 20년사를 훑어보는 '국립남도국악원 20년사'도 발간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서동환 작 'ACC에 반한 스케치'

## ACC와 동구 오래된 풍경 소환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ACC에 반한 스케치' 전...7일까지 문화정보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매력 있는 공간을 품고 있다. 사시사철 달라지는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어린이문화원 앞의 달팽이 모양의 조형물과 설치작품은 동화적 상상력을, 상상마당의 이색적인 작품과 푸른 나무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갖게 한다.

ACC의 다양한 풍경을 스케치에 담은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ACC는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대표 서동환)과 함께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를 연다. 오는 7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ACC와 동구의 오래된 모습을 소환한다. 모두 200여 점 작품은 ACC를 중심으로 어제와 오늘의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

'어반스케치'는 거주하는 곳이나 여행하는 현장을 그리는 단채로 전 세계 주요 도시 수 백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다. 지난 2020년 결성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은 광주 옛 거리와 건물, 현재를 그리고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이 활

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회원 40여 명은 지난 2월 ACC를 방문해 스케치를 했다. 지난 3~4월에는 어반스케치 작가들을 초청, ACC 전시 관람과 함께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 작품 가운데 서동환 작가는 그림은 푸르름과 낭만이 깃든 어린이창작실습실 앞 풍경을 담아 눈길을 끈다. 작가의 어린이문화원에 남다른 애착이 느껴진다.

서재는 작가는 지난해 8월 열린 월드뮤직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이 내걸린 장면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수많은 스케치로 구현된 민주평화교류원 뒷벽면은 정치하면서도 특유의 아우라를 발한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ACC에 반한 스케치'전은 오늘의 ACC가 있기까지의 지난 시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자리"라며 "ACC는 앞으로도 도시, 공간 등을 모티브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오월 광주 아픔, '어머니'로 풀어내다

가수 박종화 '엄마' 앨범 발매...11곡 수록

"이번 앨범은 지역 극단인 '토박이' 소극장에서 MR 하나 틀고 노래하며 완성했습니다. 단출하지만, 어쩌면 마지막 목적이 될지 몰라 각별한 마음이네요. 수록곡들은 5·18의 아픔, 광주의 비극사, 일제강점기 등 소재를 '엄마'라는 코드 로 풀어냈습니다."

가수 박종화는 최근 앨범 '엄마'〈사진〉를 발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좋은친구들에서 발매한 이번 앨범에는 '엄니표 찹기름'을 필두로 '병실에 와서', '5·18 아메', '분단의 어머니' 등 총 11곡이 수록돼 있다.

대표곡으로 삼은 작품은 직접 작곡한 '엄니표 찹기름'. 병간에서 찹기름을 짜는 모습과 어머니를 오버랩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짜내듯' 살아온 어머니의 삶과 회생을 반추하는 작품이다.

"물팍이 아파 기어다님서 땀 흘리고 찹지 모르겠네 미쳐볼것소 내가/ 험수 있게 허제 나 죽어볼분 생각날 것인데 알말도 허지 말아야"라는 가사에는 실감 나는 전라도 사투리의 맛도 배어 있다.

수록곡 중 '둘째 아들의 선물'도 눈길을 끈다. 이 곡은 박 씨가 스물여섯 살 때 오월학살 원흉처단을 위한 특별회 활동을 하다가 투옥된 후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1992년 처음으로 발표했으나 이번에 편곡, 미디어그래밍 등을 거쳐 재발표한 것.

5·18민중항쟁 당시 남편이나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를 모티브로 창작한 '5·18아메'도 귀를 사로잡는다.

"1980년 5월 내 나이 서른일곱/ 총탄이 뚫고 지나간 그이의 싸늘한 시신을 싸매고/ 어쩔 줄 모를 때 이미 정신줄은 사라졌어/ 미친년처럼 허둥대다가/ 라디오 새벽방송에서 나오는 한 구월/ 시신이 있으면 도청 앞 상무관으로 가져오라는 말 듣고/ 겨우 지게 하나 구해 남편을 실었지" 등 실감나는 노랫말은 당시 오월 광주의 비극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하다.



▶가수 '박종화'  
〈주)좋은친구들 제공〉

이 밖에도 아산가족을 다룬 곡 '분단의 어머니', 1980년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던 '30년 시신'을 소재 삼은 노래 '30년 남자' 등도 저마다 광주항쟁의 의미를 투신한 작품들이다. 이와 함께 앨범

에는 특별 제작한 영상도 담겨 있다. '엄마' 역할을 맡은 배우의 목소리로 노래에 삽입돼 긴장감과 현실감을 더했다.

박 씨는 "5·18 등 청년 시절 다양한 사건을 거치며 쌓인 서사와 한을 '어머니'라는 소재를 통해 풀어낸 앨범이다"며 "광주에 쌓여 있는 민중의 아픔이 이번 앨범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박종화는 '5·18민중항쟁 10주년 기념 창작공연', '청춘으로 일어서는 오월' 등 공연을 펼쳐왔다. 5·18 30주년 전야제 총감독을 비롯해 박승희 열사 20주년 문화제 총감독, 전국오월창작가요제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민선 8기 문화분야 진단과 평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64호 발간

민선8기 전반기 문화분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최근 발간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사장 김덕진)이 발행하는 간행지 '창' 64호가 이 같은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임영인 전남대 교수의 '한국의 문화정책과 광주시 지역문화정책'을 비롯해 '광주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인가' (정양주 광주민예총 부회장), '문화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고선주 광남일보 문화부장) 등이 실렸다.

'문화인 인터뷰'에서는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과 문화재단 역할,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들었다.

'문화마실'에서는 재단의 인문예술축제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가 소개됐으며 '윤상원기념관 개관' 내용을 조계현 윤상원기념사 운영부이사장의 글로 만날 수 있다. '문화기행'에서는 이현식 재단 운영위원의 '바위가 멈추는 곳'도 새로운 읽을거리다.

새롭게 신설한 코너들도 눈에 띈다. '법 잘 알려



주는 재단 오빠 김민표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은 실생활에 유용한 상식을 전달하며, '맛의 역사'에서는 '어찌다 오리탕은 광주의 대표 음식이 되었을까' 등을 만날 수 있다. 김덕진 이사장은 "재단 창립 20주년이 되는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문화간행지 '창'을 통해 문화 담론과 이슈 등 관심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은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기관, 시민들에게 배포되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